

ETH Zürich (취리히 연방 공과대학) 귀국 보고서

전기정보공학부 구인회

파견 기간: 2026/02/01 ~ 2026/08/28

안녕하세요. 저는 ETH Zürich 26 학년도 1 학기 교환학생 구인회라고 합니다. 저는 전기정보공학부 21 학번 재학 중이며, ETH 에서는 I-ITET 학과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. 스위스에서의 생활은 크게 **학업, 여행, 행정**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각각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제 경험이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.

1. 학업

a) Semester project & Lectures

저는 4-1 학기에 교환학생을 와서, 수업을 듣기보다는 Semester project 를 하고 추천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. 따라서 25 년도 9 월부터 각 연구실에 제 CV 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메일을 돌리기 시작했고, 금방 연구실 하나에서 연락이 와서 화상 면접도 보고 프로젝트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**함께하기로 했던 연구실에서 점점 연락이 안 되어서 메일을 여러 번 보내 보았는데 답장은 없었고**, ETH 계정이 생긴 12 월에서야 서울대 계정이 아닌 다른 메일로 연락하니 올해 졸업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져서 Semester project 에 받아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

결국 12 월부터 급하게 연구실을 다시 구하는 수밖에 없었고, 다행히도 연구하고 싶던 중성 원자 양자컴퓨터 그룹에서 저를 받아주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ETH 에서는 최소 20 ECTS credit 을 들어야 하고, D-ITET 단과대학에서 받는 학점이 전체 학점의 2/3 을 넘어야 합니다. 그런데 제 연구실은 D-PHYS 물리학과에 있어서, 저는 5 ECTS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

분야가 잘 맞는다면 20ECTS 를 전부 Semester project 로 듣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

결과적으로 들어간 연구실에서 좋은 교수님과 사수 분을 만나서 연구도 즐겁게 진행하고, 연구실 멤버들과 함께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한국식 바비큐도 구워 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. 소규모 연구실이라서 연구실 선배님들이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느껴졌고,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한 학기 동안의 성과를 학회 발표까지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. 처음에 목표로 했던 추천서까지 써 주시기로 약속을 받으면서, 역시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.

나머지 수업은 9 ECTS 의 Mathematics of Information (정보 이론 대학원 수업), 6 ECTS 의 Semiconductor devices: Quantum transport in Nanoscale devices (반도체 소자 양자 버전) 도합 20 ECTS 의 수업을 들었습니다. 하나는 영상 강의가 제공되었고, 하나는 제공되지 않아 직접 수업을 갔습니다. **여러분은 영상 강의가 제공되는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.** 그래야 혹시 모를 결석을 방지할 수 있고, 시험공부를 할 때에도 훨씬 편하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참고로 저는 두 수업이 시간이 아예 겹쳤는데, 영상 강의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둘 다 수강할 수가 있었습니다. 수강신청을 할 때 이것이 학부 강의인지 대학원 강의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, 대학원 수업도 크게 어렵지 않고 배울 점이 많으니 도전해보기 바랍니다. ☺

b) Intensive German course

스위스에 도착하기 전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던 것이 **학기가 시작하기 2 주 전에 진행되는 Intensive German course** 였습니다. 여기서 친구들을 대부분 사귄 수 있다는 말에 저 역시 이 수업을 수강하였고, 결과적으로는 **아주 좋은 친구들을 여기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.** 2 주 동안 매일매일 만나서 같이 독일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도 편했고, 점심도 같이 먹으며 친목을 많이 다졌습니다. 저는 유럽에 온 만큼 다른 나라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친해지는 것이 목표였어서, **먼저 다가가서 말 걸고 스몰토크를 하다 보면 어느새 친해져 있었습니다.**

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스키장도 가고, 학식도 같이 먹고, 생일파티도 하다 보면 해외 생활에서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. 다만 저의 경우에는 연구와 병행하다 보니 다른 친구들처럼 매번 놀러 다니지는 못했는데, 각자의 목표에 맞춰서 생활의 밸런스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친구들과 항상 함께 다니려다 보면 본인의 목표도 잃어버릴 수 있고,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(스키를 한 번 타러 가는데 30 만원 정도가 드는데, 제 친구들은 매 주 스키를 타러 가고 싶어했습니다.)

c) Session Exams & Semester Exams

ETH 는 시험기간이 6 월 아니면 8 월입니다. 저의 경우에는 대학원 수업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전부 8 월에 시험이 있었고, 하나는 Oral Exam (교수님과 면접), 나머지 하나는 Written Exam (일반적인 서울대 시험)이었습니다. 시험기간은 5-6 월 중에 공지가 나고, **만약 한국에서 계절학기를 듣거나 해야 하는 경우 원격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**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지체 없이 문의를 하기 바랍니다.

2. 여행

a) 스위스 근교 여행



스위스는 기차 및 대중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. 저의 경우 매일매일 8:42 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면 9:15 수업에 늦지 않게 도착했고, **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확인할 필요 없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합니다.** 스위스 근교 여행을 위해 기차를 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스위스 안에서의 교통은 SBB App 을 다운받으면 가장 빠르고 손쉽게 교통편을 확인하고 티켓을 살 수 있습니다.

저의 경우는 스노보드를 타는 것을 좋아해서 한국에서부터 보드복 및 고글, 장갑을 들고 왔는데요, 여러분도 스키나 스노보드를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오기 바랍니다. 스위스에서 구매하게 된다면 두 배는 비쌀 것입니다. 그리고 만약 개인 보드나 스키가 있다면, 비행기를 탈 때 루프트한자 학생 할인을 받으면 무료 수화물이 가능합니다. 알프스 위에서 스키를 타고, **하얀 산맥 아래를 친구들과 함께 내려오는 경험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.** 다만 만약 스키와 스노보드를 둘 다 탈 수 있다면 스키를 더 추천합니다. 우리나라 스키장과 다르게 산 전체를 슬로프로 쓰는 만큼, 중간중간에 평평한 구간도 있어 스노보드로 넘어가기 정말 힘듭니다 (보더라면 가서 스키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. 저도 스위스에 와서 스키를 처음 배웠는데 스노보드보다 10 배는 쉬운 것 같습니다.)

하이킹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. **Stoos, St. Morriz, Rigi 등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이킹 길들이 취리히에서 기차로 한 두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습니다.** 샌드위치와 소세지를

도시락으로 챙겨서 산 위에 있는 아무 바비큐장에 들어가 소세지를 구워 먹고 있으면 어느새 눈 앞에는 알프스의 절경이 펼쳐져 있습니다. 하이킹을 마친 후 스위스의 빙하 호수에 바로 뛰어들어 땀으로 지친 몸을 씻으며 얼음같이 차가운 물에서 신나게 물놀이는 하는 것은 스위스 하이킹 여행만의 백미입니다.

b) ESN events

스위스 전역을 가장 싸고 효율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바로 **ESN(Erasmus Student Network)** 이벤트입니다. 스키 여행부터 시작해서 크루즈, 패러글라이딩, CERN 투어까지 스위스 전역의 여행을 교통비 포함해서 **절반이 안 되는 가격으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**. 단점이라면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친해진 친구들 여러 명과 함께 신청을 해서 돌아다니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는 **제네바에 있는 CERN 입자가속기 투어였는데**, 실제로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서 반입자 실험을 구경하고 연구원분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.

c) 다른 나라로의 여행



스위스는 중부 유럽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고, **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**. 그만큼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기도 편하고, 쥬겐 조약으로 여권 검사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. 저는 다른 나라로의 여행은 한 달에 한 번 가는 걸 목표로 했으며, 한 번 갈 때도 인접한 국가나 도시를 세 개 정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방문한 도시는 뮌헨, 프라하, 베를린, 밀라노, 리히텐슈타인, 바르셀로나, 마드리드, 리스본, 런던, 니스, 칸, 모나코, 아테네, 산토리니, 암스테르담, 브뤼셀, 스파, 하이델베르크, 잘츠부르크, 비엔나, 돌로미티, 파리였습니다. **유럽 교환학생의 가장 큰 장점인 만큼, 다른 나라로의 여행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.**

3. 행정

a) 의식주

가장 먼저,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기숙사입니다. 저의 경우에는 학교에 신청하면 연결해주는 **WOKO** 라는 **학생 기숙사를 활용했습니다**. ETH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기숙사가 바로 이것입니다. **7 개월 동안 월 150 만원 정도의 월세로 개인 공간, 개인 화장실, 공용 샤워실과 주방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**, 저는 샤워실 바로 앞의 방이었던 데다가 1 층에 있어서 주방을 왔다 갔다 하기에 아주 용이했습니다. 방을 얻을 때 요구사항을 메일로 보내면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1 층을 원한다는 메일을 보내 보면 좋은 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.

식사의 경우 저는 학교를 갈 일이 많이 없어서 학식은 자주 먹지 않았는데, **학식은 대략 6 프랑에서 12 프랑, 한국 돈으로 11000 원에서 23000 원 사이입니다**. 이것도 취리히 물가를 고려하면 굉장히 싼 편이기 때문에, 저는 외식을 하고 싶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은 사 먹었던 것 같습니다. 이외에는 아시안 마트에서 한국 쌀을 10kg 사 놓고 간장 계란밥을 해 먹거나, 라면이나 파스타, 샌드위치 등 다양하게 해먹었습니다. 취리히는 관광하거나 쇼핑, 나가서 뭘 사먹을 곳이 마땅치 않고 사먹더라도 돈 값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요리가 거의 취미가 되었습니다. 라면의 경우에도 생각보다 구하기 쉬워서, **한국 돈으로 3500 원 정도면 신라면을 어떤 마트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**. 계란의 경우는 한국 만큼이나 싸서 한 알에 500 원 정도라 자주 먹었고, 아침으로는 마트에서 파는 1000 원짜리 크루아상이 있는 데 그걸 자주 먹었습니다. **밖에서 사 먹지만 않으면 살 만 한 물가입니다**.

결과적으로 저는 **월에 150 만원정도를 생활비로 쓰는 것을 목표로 잡았었고**, 보험료나 통신비 등 여러가지를 더하니 그것보다는 조금 더 사용한 것 같습니다. 옷의 경우는 여기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모님이 겨울용 옷을 보내주셨고, 우체국택배로 큰 상자로 보냈을 때 30 만원 정도의 배송비로 2 주 가까이 걸렸습니다.

b) 통신 및 보험

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,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통신과 보험입니다. 스위스에서 3 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법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 그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. 월 40 프랑을 내고 거의 보전받지 못하는 보험이 있고, 월 120 프랑을 내고 거의 100% 보전 받는 보험이 있는데, 저는 **부모님의 권유로 월 120 프랑짜리 보험을 택했습니다**.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, 스키나

보드를 타다가 다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구급 헬기를 불러야 하는데 이 비용이 최소 천만원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다치더라도 헬기를 부르지 않고 절뚝이며 내려오는 환자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. 스위스 강에서의 수영도 마냥 안전하지만은 않으니 잘 고려하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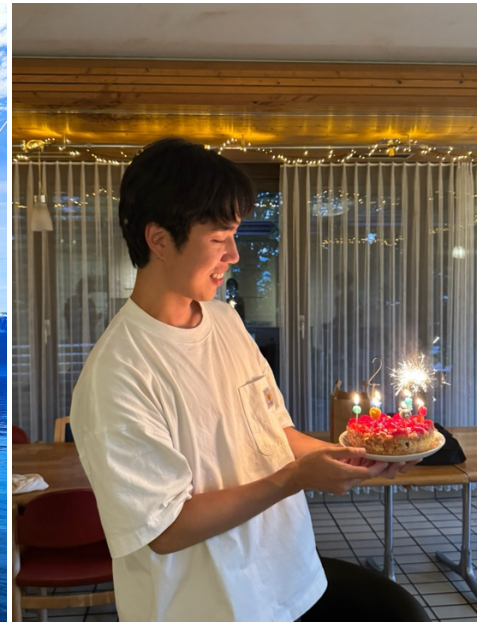
통신사의 경우 저는 Yalo 를 사용했는데, 월 25 프랑에 스위스는 물론이고 유럽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통신 요금제였습니다. 저는 유럽 여행을 한 달에 한 번은 갔기 때문에 매번 esim 을 구매하는 불편을 피하기 위해 이 요금제를 선택했는데, 통신 품질이 한국만큼 좋진 않습니다. 스위스에서 가장 불편을 많이 겪었던 것이 바로 이 통신 문제입니다. 방에서의 와이파이도 잘 되지 않고,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에서 보이스톡을 할 때 끊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. 그렇다고 가장 통화 품질이 좋은 **Swisscom** 을 사용하려면 월 100 프랑을 내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.

c) 교통

교통이 가장 스위스에서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, 가장 비싸고 또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교통입니다. 아무 고민하고 싶지 않고,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은 분은 GA 를 구매하면 되는데, 이것은 월 60 만 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. 스위스의 교통비를 체감하려면 학교로 등교하는 관악 02 번 버스가 편도로 7000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교통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법은 기후동행카드처럼 Zone 패스를 구매하는 것인데요, 기후동행카드는 5 만원대인 반면 여기서의 **Monthly pass** 는 취리히 시내 기준 90 프랑, 즉 18 만원 정도 합니다. 이것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. 저의 경우는 연구를 하는 연구실에서 교통비는 조금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.

이외에도 스키장이나 하이킹을 가거나, 베른, 제네바, 루체른 등 다른 주요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교통비가 요구되는데요,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**Half fare pass** 를 구매한 뒤, **Half fare plus 1000** 바우처를 구매하여 이것으로 가는 교통편을 구매하고, 오는 교통편은 **Night GA** 를 타고 무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. 굉장히 복잡해 보일텐데, 어렵지 않습니다. **Half fare pass, Night GA** 는 1 년 동안 유지되는 혜택입니다. 100 프랑 정도의 가격만 내면 앞으로의 모든 교통비가 절반이 되고, 오후 7 시 이후의 교통편은 전부 무료가 됩니다. 제네바 왕복 티켓이 100 프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싼 가격이지요. 그리고 **Half fare plus** 의 경우는 600 프랑으로 1000 프랑짜리 교통 바우처를 구매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거의 1/4 가격으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친구 4 명이 모이면 **Friends pass** 를 이용하여 하루 20 프랑의 가격으로 스위스 전역을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.

4. 마무리하며



한국에서만 살았고 해외 경험이 없던 저에게 스위스에서의 한 학기는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방향성을 찾게 해준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. 이런 행복한 경험을 하게 해 준 모든 친구들, **Sydney, Sohpia, Jay, Wonyoung, Peter, Anthony, Markus, Enda, Sophia, Nicolas, Emily, Lucas, Kylee, Simon, Jack, Nina, Danielle, Jade, Harry, Matteo, Erin, Max, Maxwell, Kevin, Alonso** 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. 덕분에 가장 행복한 24 번째 생일을 보낼 수 있었고,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도 만약 교환학생을 꿈꾸고 있지만 두려워하고 있다면 고민 없이 도전해보기 바랍니다. 유럽 최고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국제협력실과 공과대학 동창회에도 감사드립니다.